

예수병원 동문 김임 원장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정신건강 치유 · 뇌전증 환자 지원 · 간질 환자 무료 진료 등

예수병원 동문인 김임신경정신과의원의 김임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주식회사가 지난 1985년 제정한 보령의료봉사상 34회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령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다양한 의료봉사자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김임 원장을 수상자로 최종 확정, 제34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김 원장은 1964년 전남의대 재학 중에 시작한 봉사활동을 54년 동안 이어오며 농어촌 의료봉사는 물론 해외까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치유 및 뇌전증 환자 지원하고 1972년부터 '잠미회'에 몸담아 간질 환자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예수병원 정신장애우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마음나누리 이사장을 맡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 정신건강 치료에 힘써왔으며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YMCA 등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사랑의 인술 실천에 앞장서 왔다.

김 원장은 1980년 예수병원에 전문의로 입사해 주임과장을 역임했으며 1999년까지 19년간 봉사했다. /채규남 기자



정읍시 소성면, 20가구에 밀반찬 배달

정읍시 소성면이 지난 15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20가구에 밀반찬을 배달했다.



밀반찬 지원 사업은 자체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행복 복지 사업' 일환이다. 면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 발마사지', '소성 사랑콜(공무원과 독거 노인 1:1 결연)', '찾아가는 행복 복지상담실 운영' 등과 함께 '사랑의 밀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랑의 밀반찬 배달사업은 '꽃두레권역 영농조합법인(이하 꽃두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꽃두레에서 밀반찬을 만들고, 어르신과 1:1 결연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인부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도 듣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 신평면행복나눔협의회 회의

임실군 신평면행복나눔협의회는 신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손완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특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

신평면행복나눔협의회는 공공위원과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및 지역자원 발굴, 이동발레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에 생김 소소한 불편은 협의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해 주고 있다. /임실=진충영 기자

장수남성이용소방대장 이·취입식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16일 장수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남성이용소방대장 이·취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역 양성빈 도의원과 유기홍 군의장을 비롯한 많은 군의원님들과 정병욱, 김옥녀 장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에 제24대 대장으로 취임한 최용운 대장은 1982년에(25년) 입대해 이래 장수남성이용소방대 총무부장과 부대장을 거쳐 이번에 대장으로 오르게 되었다.

최용운 신임대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년간 장수남성이용소방대를 잘 이끌어 주신 백영귀 전 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수지역 의용소방대간의 화합과 단결로 장수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인플러스 - 고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주방기구 무상 설치

고창군 아산면에 소재한 (주)인플러스(대표 송미연)가 고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에 주방기구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인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해 4가구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싱크대를 무상 지원해 오고 있다.



고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은 올해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싱크대가 파손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가구를 추천했으며 인플러스는 가구당 1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교체해줬다.

홍덕련 윤모씨는 "싱크대가 망가져 물이 새고 밖에서 설거지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는데 새로 바뀌워 편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져 기분이 좋다"며 "고창군청과 인플러스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주)인플러스 송미연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도 매우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강식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7일 센터 교육실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0회기 동안 진행되는 올해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은 스피치 교육과 미술치료를 통한 집단 상담과 현장 직업 체험, 집월드 체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로로 고민하는 청소년 20명이 참여해 목소리 진단과 발음연습, 감정조절 및 감정표현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스피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집단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향, 자신의 장·단점을 통한 강점 찾기, 심리 및 적성검사를 통한 자기진로탐색을 통해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정읍경찰서, 맞춤형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중 범행수법을 전파하고 사제별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는 등 맞춤형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를 선정해 전광판 및 플래카드를 활용 홍보활동을 실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범죄동향·수법을 공유하고 기능 간 협업사항을 추진하는 등 증가추세인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호전 수사과장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 최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